

이렇게 들었다

생명의 소중함

“나와 이웃 돌아닌 하나”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참으로 어렵다. 비유하자면 큰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눈 먼 거북이 백년에 한 번 떠오르는데 마침 구멍이 하나 있는 통나무를 만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어리석은 범부가 생사를 윤회하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눈 먼 거북이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보다 어렵다. 그것은 중생들이 법을 등지고 선을 행하지 않고 진실을 행하지 않으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면서 한량없는 악을 지었기 때문이다.” <잡아함경>

부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지중한 인연인가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무한한 어려운 속에서 태어난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십상이다. 설명 그 존엄성을 인식한다고 해도 그 잣대는 '나'의 본성이기보다는 육신 즉 곁대기에 가깝다. 결국 우리는 나의 육신에 탐착하여 모든 생명의 고귀함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다 큰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던 것일까.

이런 점에서 최근 생면부지의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선로에 뛰어든 이수현 씨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우리가 그 동안 잊었던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준다.

다른 사람이 직면한 위험을 묵숨 곁고 막으려한 정신, 뜻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살신성인이라며 그의 희생정신에 애도의 조문을 표한다. 하지만 불교적 시각을 갖춘 눈빛은 이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생명의 사라짐은 곧 나의 생명이 사라진다는 생명의 존엄성에 무게중심을 둔다. 결국 나와 이웃은 돌이 아니라는 불이(不二)의 사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이수현 씨의 행동에서 불교적 인격도 엿볼 수 있다. 아니 불자라면 그 점을 절실하게 느껴야 마땅하다. 우리는 흔히 인격이라고 하면 나보다 높은 고매한 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인격은 위 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인격의 본래 의미다. 생명존중 사상이나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불교사상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격을 갖춘다는 의미는 우선 나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사상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생명이든지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도 저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불자들은 이 씨의 의로운 죽음을 접하면서 ‘묵숨을 바친 위인’, ‘용기 있는 행동’ 등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는 과연 그동안 다른 생명의 소중함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부처님과 조사 그리고 역대 고승들은 한결같이 올바르게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곧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여러 방면으로 강조했다. 살아 있는 생명에 대해 연민의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준근 기자

불자세상보기

파시스트적 인종주의 ‘한국 자화상’

지난 설 연휴에 서울 롯데월드 앞 길가에서 ‘살색 없애기’라는 이색적인 캠페인이 있었다. 색깔을 나타낼 때 쓰는 ‘살색’이라는 말이 ‘인종차별적’이므로 이 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스스로 아주 세계화되고 계몽된 선민(選民)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냉대와 멸시를 보면, 여전히 민족중심적, 국가중심적인 근대성의 틀에 고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민족, 민족주의는 누천년 민족 공동체를 지탱해 온 힘의 원천으로 아주 각별한 것이었다.

그러나 50여년 전 ‘인민권자’로 해방된 국민들은 강제와 예측의 쓰러린 경험을 타민족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공격성으로 대치하였다. 지난 40여년간의 국부의 증가와 이에 기초한 민족적 긍지는 오로지 문화적 편협성과 인

외국인노동자 ‘출대’

탈북자 입국거부까지

종적 증오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파시스트적 인종주의’로 우리의 일상에 깊이 내면화되어 있다.

화교는 한국에 있는 유일한 소수민족이다. 우리는 수십만이 누대에 걸쳐 살아온 그들에게 거주, 교육, 재산취득 등 온갖 제도적인 제한과 불이익을 주었다. 몇 년을 살았던 3~6개월에 한번씩 거주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외국인 등록제도 뿐만 아니라, 중국동포와 사할린 동포의 영구 귀국에 대한 제한조치, 탈북자의 입국거부 등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파시스트적 인종주의는 도처

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구타당하지 않는 노동 시장’을 꿈꾸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고 있지 않은가? 매일 교포의 참정권을 요구하고, 거주 등록 시 지문날인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고, 미국에게는 입국시 비자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에 이런 배타적이고, 불관용한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자기 민족은 무한 팽창을 요구하면서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을 보이는 이중성은 ‘역근대화’의 전형이다. 4년 전에 우리는 세계화의 부정적 귀결로서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였다. 그때 우리는 시장과 자본의 유동이 자유롭다면 노동 역시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미국을 향해 항변하였다.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동남아시아, 근동의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

타민족 배타적 시각

지구촌시대 뒷걸음

의 노동은 필연적으로 초국가적으로(Transnational) 공유되어야 한다”고

일상의 파시즘을 벗어나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세계화되어야 한다. 인민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애국적인 시민이기보다는 세계시민이어야 하고, 정치는 국민국가 내 통치가 아니라, 세계-내-정치로 되어야 한다. 노동은 민족국가 내의 분배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국경과 대륙을 넘어 공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3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소위 3D 직업은 노동이민에 의한



구승희
동국대 교수
윤리학

일자리 침탈이 아니라, 노동과 부의 국제적 분배일 따름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영토 내에서 분배되던 노동이 세계화되는 단적인 사례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직업군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로 ‘수출’된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이동’이 아니라 일자의 이동’이다. 노동의 세계화와 초국가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역근대의 전형인 인종적 파시즘을 반성해야 한다.

열린마당

종교신문고의 역할

“종교 건전발전 중개창구되길”

법현님 <중단협 사무국장>



종교라는 말의 참 의미는 가장 위대하고, 참되며, 바른 것이어서 산마루처럼 최고가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종교로 인해 어려움 또는 고통을 겪을 리가 없다고 보지만 앞 산도 산이요, 뒷 산도 산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종교의 이름 가진 단체나 그 소속원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피해가 막심하고 사회적 반향도 크게 마련이다. 이들 사이비 종교 또는 사이비 종교인들은 운영체계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리의 양상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단체는 아무 스리도 못하고 재산과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종교 비리를 척결하고, 해소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고발 창구를 문화관광부가 '94년부터 '종교신문고'라는 이름의 전화로 개설해 종교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 쓰임이 많아 전화할 한 대에서 네 대로 늘렸더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심정이다.

종교의 본래 목적이 번뇌의 속박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종교나 종교인들의 입체 밑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구원한다는 뜻에서 구출구출(9797)로 번호를 받았더니 이 또한 아이러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인정해 설립된 것이니만큼 종교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개 창구로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또 하나는 바른 종교의 바른 교화노력이 사회에 넘칠 때 종교신문고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점을 직시하고, 연합감찰 등 제 역할을 다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종교신문고에서 도 육역을 가려서 종교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문화관광부 중무실이 지난 94년부터 설치 운영해 온 '종교신문고' 수신전화를 1대에서 올해 4대로 늘리는 등 활동을 강화했다. '종교신문고'는 문제성 종교로 인한 피해 구제, 종교와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 상담, 정부의 종교정책에 관한 제언접수 등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교간섭 등 설치취지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종교신문고의 역할과 그 범위에 대한 문공부 중무실과 불교계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사이비종교로부터 국민보호”

나기주 <문화관광부 중무실 사무관>



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7년동안 모두 561건의 각종 민원이 종교신문고에 접수되어, 국민들의 종교관련 애로사항과 상담,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 및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그중안의 종교신문고 이용내용을 보면, 종교교리, 세금 관련 사항 등을 문의한 경우가 284건, 종교 내부분쟁 관련사항이 33건, 종교비리에 대한 고발·상담이 159건, 종교관련 자료요청이 34건, 각종 건의나 제언이 49건이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년 1월부터 '인터넷 종교신문고' (www.mct.go.kr)를 신설한 데 이어, 2001년 1월에는 '전화' 종교신문고도 기존의 02-720-1994번 외에 02-3704-9797(구출구출)번호를 추가 신설했다.

종교신문고는 우리나라의 종교 환경 속에서 일부 사이비·문제성 종교가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미풍양속과 도덕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며, 폭행·사기 등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올바르게 건전한 종교활동을 더욱 충실히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종교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종교간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신문고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문제해결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외에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종교신문고의 경우에는 일반 사이버민원과 달리 당사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분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

기고

시대에 따라 바람직한 아버지의 상은 다르다. 옛날의 아버지들은 완고하고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자녀들과의 유대관계에는 무심경한 편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아버지들은 보편적으로 자상하고 친구 같은 성향이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일에 쫓기고, 생활고에 찌들어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많다. 명함만 '아버지'임을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고, 자식들로부터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지난달 28일 한 40대 아버지가 불을 피워 여섯살짜리 딸을 안고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딸의 목숨을 건지고 자신은 숨진 사건이 있었다.

“그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부모의 정은 변하지 않지.” “어느 누군데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땅의 아버지라면 아마도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가슴쿵쿵한 감동을 느꼈으리라.

이번 사건은 수많은 아버지들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한다. 자녀들에게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는 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빗물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버지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서 아이들과 대화의 문을 열어보자. 자녀와 놀아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논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아!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못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자. 아내나 자녀에 관한 화제를 꺼내는 것이 팔불출에 속한다고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은 말했지만 오늘의 아버지들이여,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려 보자. 그리고 오늘 한 번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 하고 입맞춤이라도 해보자.

“
좋은 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놀이 대화
”



임영재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운영위원장

신년벽두! 호암사에 가면 희유한 인연공덕이 있다

귀의삼보 하옵고,

신사년 새해를 맞아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 자비광명과 가피가 충만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호암산 호암사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서원으로 참불자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여 무량한 지혜와 공덕의 복전을 일구는 삶을 살아 갈 것을 서원하기 위해 부처님 성도일로부터 49일간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를 봉행 합니다. 일찍이 태국 왕실사원에 봉안되었다가 참으로 희유한 인연에 의해 불가사의한 과정을 거쳐 호암사에 봉안예정인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한해를 설계하는 시간, 호암산 호암사에 오셔서 희유한 인연공덕을 맺으시고 활기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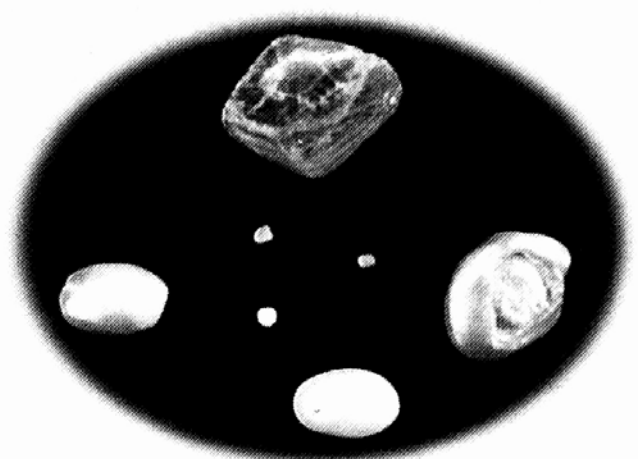
태국왕실 사원에서 모셔온 사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 안내>

- ◎ 입 재 : 2001년 1월 2일 (음력 12월 8일) 오전 10시
- ◎ 회 향 : 2001년 2월 19일 (음력 1월 27일) 오전 10시
- ◎ 동참금 : 2만원

대한불교조계종 호암사 주지 석원욱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34번지
전화 02) 803-4779 팩스 02) 891-0770



호암사의 유래

서울의 안녕을 지키는 호암사

호암산 호암사는 조선의 개국에 때맞춰 창건된 사찰이다. 조선 태조 2년에 설치된 신도궁궐 조성도감에서 궁궐을 지었는데 궁궐이 다 지어질 무렵 건축물이 허물어지기를 몇 차례, 태조는 꿈에 호암산이 호랑이 형세여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된다. 태조의 왕사 무학대사도 호암산이 호랑이가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보고 범바위 서쪽에 절을 세우고 북쪽으로 10리 지점에 궁교(弓橋)를 만들고 또 북쪽 10리 지점에 사자암을 지었다. 호암사는 이같은 풍수지리상의 비보사찰로 지어져 조선 5백년의 역사 동안 한양을 굽어보며 왕실과 나라의 안녕을 지켜 온 유서깊은 사찰이다. 호암사는 호암산의 정기가 모아져 있는 호랑이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어 기도처로 유명하고 스님들의 정진원력이 성취되는 수승한 도량으로도 알려져 있다. 호암사는 1994년 10년 중창불사를 발원하여 일주문을 세우고 법당과 삼성각을 신축하고 요사채도 단장했다. 앞으로도 보제루와 범종각을 신축하여 사격을 일신하기 위해 중창불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